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듣기대본

1번. 이제 강의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날씨가 더워졌죠? 여름철 안전사고에 주의할 때입니다.

오늘은 수상 안전과 관련된 인명 구조 기술을 배워 보겠습니다. 우선 실습에 앞서 인명 구조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죠. 그림을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슴잡이 기술입니다. 이 그림에서 구조원은 자신의 한쪽 팔로 익수자, 즉 물에 빠진 사람의 가슴을 감싸며 익수자의 반대쪽 겨드랑이를 잡고 있습니다. 주로 익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익수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구조원은 익수자와 몸을 수평 상태로 유지하며 자신의 한쪽 손으로 익수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 구조원은 익수자의 겨드랑이를 밑에서 위로 잡아야 합니다. 이 방법을 한쪽 겨드랑이 끌기라 합니다.

이번 그림은 두 겨드랑이 끌기 기술입니다. 익수자의 위치가 물 속에 있을 경우 구조원이 익수자의 두 겨드랑이를 각각 잡고 익수자를 수면 위로 밀어 올린 다음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죠. 구조원이 자신의 한쪽 손으로 익수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휘젓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손목 끌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2번. 이번에는 '새 은행권 발행'에 대한 뉴스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 :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는 새 은행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발행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부장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자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먼저 새 은행권을 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자 : 최근 들어 위조 지폐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캐너와 컴퓨터를 이용한 위조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위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으로는 최첨단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은행권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위폐 방지를 위해 도안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나라가 많은데, 2002년 이후 45개국에서 100종의 새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앵커 : 새 은행권에서 바뀌게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관계자 : 우선 위폐 방지를 위해 최첨단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규격은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축소하여 사용상의 편리를 도모하며, 도안은 밝고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여 예술적 세련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도안 인물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새 은행권 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앞으로 발행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자 : 위폐 문제가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새 은행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 오천 원권이 발행되며, 그 다음 해에 천 원권과 만 원권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이번에는 대학생 간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답지까지 다 들은 후에 푸는 문제이니,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축하해. 한 번에 취직됐다며? 대단하다.

여 : 대단하긴 뭘.

남 : 나한테도 비결 좀 가르쳐 줘. 내일 면접 보러 가거든.

여 : 그래? 당연한 얘기지만 공손하고 솔직한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 그러면서도 자기 삶의 자세를 당당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어.

남 : 음, 간단할 거 같진 않은데. 한번 예를 들어 줘 봐.

여 : 지난 번 면접관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 “1학년 때 학점이 유난히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니까?” 그때 난 좀 난처했어.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내 삶의 자세를 드러낼 수 있는 대답을 찾아냈지.

남 : 그래? 뭐라 그랬는데?

여 : “제가 그때 고민이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

남 : 야, 대단한데. 그래 이제 좀 알 거 같다.

여 : 그러면, 비슷한 질문을 할 테니까, 내가 한 것처럼 대답해 봐. (잠시 후 목소리를 면접관처럼 바꾸어서) “어쩌다 졸업이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자, 이제 예상되는 남학생의 답변을 들려 드립니다.

<첫째 답변입니다.> 예? 글썄요. 으음, 현재의 저를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돈을 좀 벌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부는 열심히 못 했습니다만…….

<셋째 답변입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넷째 답변입니다.> 학비를 버느라고 졸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저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소중한 인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다섯째 답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은 앞으로 저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4번.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의 초가집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초가집 하면 아마도 전통, 자연, 환경 등과 같은 말들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초가집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뗏짚, 소나무, 진흙 등 자연의 재료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여 초가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가집은 그 배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살기에 편안한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초가집의 지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짚은 가벼워서 기둥에 압력을 적게 줍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눈이 녹아도 짚의 결을 따라 물방울이 흘러내려 잘 새지 않습니다. 짚을 받쳐 주는 것은 소나무 기둥인데, 그 속에는 썩지 않는 송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송진이 소나무 속을 잘 썩지 않게 만들어, 초가집을 오랫동안 지탱하게 해 줍니다.

우리 선조들은 복잡한 계산을 통해 지붕이나 기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원리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나면, 자연이 알아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진흙벽에서도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과 6번!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 대답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박사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박사님, 오늘은 청취자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사람은 왜 잠을 잘까?', '몇 시간이나 자는 것이 적당할까?', '낮잠을 자는 것이 좋은가?', '불면증일 경우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사람은 왜 잠을 잘까요?

박사 : 잠을 자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우리 몸에 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다양한 활동으로 몸에 피로가 쌓이면 이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자야 한다는 거지요.

진행자 : 예. 그럼, 몇 시간 자는 것이 적당할까요?

박사 : 사람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인의 수면 주기를 고려할 때, 여덟에서 아홉 시간은 자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자면 수면 리듬이 깨져 피곤해집니다. 또한 잠을 적게 자는 것도 해롭지만 불규칙하게 자는 것이 더 해롭습니다.

진행자 : 예. 그리고 낮잠을 많이 자서 걱정이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낮잠을 자는 것이 좋은가요?

박사 : 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밤잠이 부족한 사람은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입시 준비로 잠이 부족한 수험생은 부족한 수면량을 낮에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휴일에 몰아 잔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에도 평소처럼 자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다음 질문인데요.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 : 불면증이란 잠이 아예 잘 안 오거나 잠자리가 불편해 자주 깨는 증상입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늘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를 보충하려고 하죠. 하지만 낮잠을 많이 자게 되면 밤에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행자 :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박사 : 음,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집니다. 그럴 경우 허기를 잘 느끼고 많이 먹게 돼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관련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멍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지나치게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진행자 :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